



센트럴윤길중안과, 전공의 대상 수술 시연

센트럴윤길중안과는 지난 18일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안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비전 스위트를 이용한 3D 백내장수술을 시연했다. (사진)

22일 센트럴윤길중안과에 따르면 이날 견학차 방문한 안과 전공의는 모두 3, 4년차로 먼저 윤길중 대표원장의 수정체 유화술에 관한 강연을 들은 후 병원 라운딩과 수술을 참관했다. 실제 환자가 아닌 모델아이를 이용해 수술법을 시연했으며, 이후에는 전공의들이 실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4월 도입한 비전 스위트(Vision Suite)는 안과 의료진을 지원하는 예코시스템이다. 비전 스위트를 이용한 3D 백내장 수술은 3D 모니터로 각막 내피세포 손상을 및 후낭파열 위험성을 낮춰 안정성이 높다. 또한, 작은 수치의 각막 난시까지 교정이 가능하며, 수술 중 눈부심이 적고 수술 후 빠른 회복과 망막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체육회-송원대, 스포츠 발전 협약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와 22일 송원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과 김영삼 사무처장, 송원대 최수태 총장, 권성욱 대외협력부총장, 김호연 기획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인적·물적 자원과 연구개발 지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광주스포츠 과학연구원과 송원대 스포츠데이터분석학과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체육 현안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대표 명문사학 송원대학교와 협약을 맺을 수 있어 기쁘고, 세팍타크로 등 5개 팀 육성을 비롯해 광주체육을 이끌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광주체육발전을 위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은행, 전남도 치매어르신에 배회감지기 1200개

치매어르신 안전 환경 조성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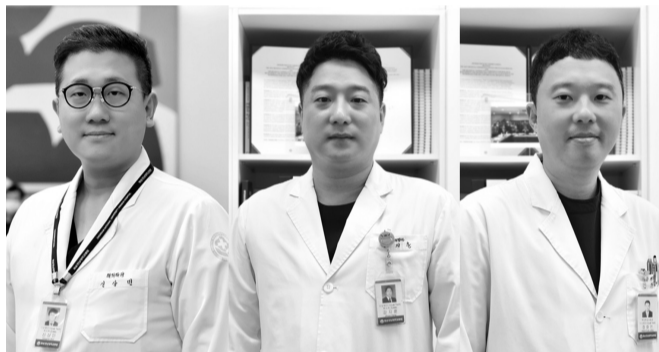
전남도는 22일 광주은행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1200개(3억5000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광주은행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어르신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2023년에도 8800만원을 지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한 바 있다.

배회감지기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배회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김영록전남도지사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치매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에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수도 증가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농어촌 전남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2025년까지 3년간 총 977억 원을 들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화순전대병원 논문, KCI 등재지 게재 잇따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임상병리사들의 연구논문이 KCI 등재지에 잇따라 게재되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사진)

22일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분자프로브혁신센터 신상민, 강지훈, 장화연 임상병리사의 논문이 최근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지와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 게재는 핵의학 실무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으며,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임상병리사들의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지에 원저로 게재된 신상민 임상병리사의 논문 제목은 'Study on the solution for the reduced Ga-68 PSMA-11 synthesis yield'이다. 또 강지훈·장화연 임상병리사의 'Optimization and stabilization of automated synthesis system for reduced Ga-68 PSMA-11 synthesis time' 논문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원저로 게재됐다. 노병하 기자



밝은안과21병원, 눈그림 공모전 시상식

밝은안과21병원이 지난 20일 밝은안과21병원 11층 소회의실에서 '제16회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22일 밝은안과21병원에 따르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은 눈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2009년 시작해 올해 16회째를 맞이했다.

공모전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눈'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에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창작 그림 총 250여 점이 출품됐다.

이 중 주제 전달력, 창의력, 표현력, 완성도 등의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입상 20명 총 3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건강한 생활로 지키는 건강한 눈'이라는 주제로 출품한 광주 효덕초등학교 박가는 학생 작품이 수상했다. 노병하 기자



김동수 세관장, 기아 Autoland광주 방문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2일 광주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 하나인 기아 Autoland광주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기아가 최근 해외 수출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등 판매 호조로 이어갈 수 있도록 통관 행정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기아 Autoland광주는 올해 상반기 누계 28만여대를 생산해 65.7%인 18만5000대를 수출하는 등 전년도 상반기 실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스포티지, 셀토스 및 쏘울 차종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기아 전체 생산량의 33.7%, 수출은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전국 대학 RCY 인도주의 리더십캠프' 성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9~21일 2박 3일간 광주대학교에서 '전국 대학 RCY 인도주의 리더십캠프'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RCY는 Red Cross Youth의 약자로, 적십자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범세계적 청소년 단체다.

이번 캠프는 50여명의 대학 RCY 회원 및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리더십 명사 특강, 스피치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사회와 인도주의 리더십, 5.18 민주화정신 바로알기, 친선·교류 활동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전국의 대학 RCY 단원들이 광주에 모여 뜻깊다"며 "광주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아침이슬' 김민기 전 학전 대표 별세, 향년 73

1970~80년대 청년문화의 원형을 만든 인물이자 국내 포크계의 대부로 통하는 김민기(73·사진) 전 학전 대표가 별세했다. 향년 73.

22일 김장남 성공회대 교수 등 가요계에 따르면, 김민기는 암투병 끝에 전날 별세했다.

40대 이후 세대에 김민기 대표의 아련함의 대상이다. 그는 1970~1980년대 청년문화를 이끌었다. 세상의 운명에 따라 상징적인 노래가 된 '아침이슬' '상록수'로 기억되는 '포크계 대부'다.

70세를 막 넘김 김 대표는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재동국민학교와 경기중·고를 거쳤다. 경기중·고 시절 미술반 활동을 했고, 1969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다.

이후 1970년 '아침 이슬'을 내놓았다. 초창기엔 건전가요로 지정됐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금지곡이 됐다. 불운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1년 전 '건전가요 서울시문화상'을 받았던 곡이었다.

김 대표가 1971년 내놓은 독집 음반은 전량 압수됐다. 이후 김 대표의 방송 금지지는 물론 연행의 길을 걸었다. '친

구' '아름다운 사람' '가을 편지' '봉우리' 등의 노래는 세상이 김 대표에게 빛진 노래다. 특히 그가 1978년 발표한 노래 '공장의 불빛'은 1970년대 노동자의 삶을 다룬 '노래극'으로 당시 노동현실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평가받는다.

김 대표는 자신의 목소리를 음반으로 남기는 것을 마땅치 않아했다. 하지만 이전 곡들을 모아 1993년 네장의 앨범으로 된 '김민기 전집'을 발매했다. 이 음반 계약의 선불금을 받아 1991년 학전을 개관했다. 김 대표가 각종 어려움을 뚫고 연 학전은 공연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숨통이 됐다. 김 대표는 우리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아 2020년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제30회 호암상 수상자' 예술상을 받았다.

조문은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가능하다. 조의금과 조화는 고인의 뜻에 따라 받지 않는다.

빈소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2,3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 천안 공원묘원. 뉴시스

일본 콘서트 마친 도경수 "여운 오래 가길 바란다"

가수 도경수(사진)가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팬 콘서트를 마쳤다.

도경수는 지난 18~21일 일본 도쿄·나고야·오사카에서 아시아 팬 콘서트 '블룸 인 재팬' (BLOOM in JAPAN)을 열었다. 도경수는 "공연을 보러 온 분들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여운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흥이 날 수밖에 없는 앨범을 가지고 곧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도경수는 미니 3집 앨범의 타이틀곡 '마스' (Mars)를 부르며 공연을 시작했다. 근황 토크를 비롯해 팬 참여 이벤트, 커버곡 라이브 등 다양한 코너를 진행했다. 도경수는 다음 달 3~4일에 요코하마에서 공연을 연다. 뉴시스